

100년만에 서울시금고 뺏긴 우리은행에 거센 후폭풍

32조 잃고, 지점장 26명·직원 300명 보따리 쌀 판

104년만에 2급고로 밀려나
25개 구금고 '연계영업' 위태
손태승 우리은행장 성적 '오점'

우리은행이 한 세기동안 지켜왔던 서울시금고(1급고)를 놓치면서 '트레이드마크'를 잃었다. 규모만 32조원이다. 여기에 서울시 구금고, 대학교 등 연계 영업에서도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 관측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사라진 우리은행 트레이드마크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1급고 우선협상 대상은행에 신한은행을 선정했다. 우리은행은 104년 만에 2급고로 밀렸다.

서울시금고는 1915년부터 우리은행이 단독으로 맡아오면서 다른 은행들은 넘보기 어려운 절대 영역 '철밥통'으로 불렸다. 그러나 서울시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복수 금고 체제로 전환하면서 예산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

총공세를 펼친 신한은행이 서울시 1급고를 차지한 것. 서울시 재무과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객관적 공시자료가 우수했고 금고 출연금, 협력사업비 등에서도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중요 항목이었던 전산시스템 평가에서도 선방했다. 이 항목에선 우리은행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신한은행이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은행장. /우리은행

전산 오류로 서울시민 70만명에게 세금 고지서를 잘못 발송한 점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신한은행은 1점 더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향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항목에서도 신한은행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다면, 우리은행은 지나치게 안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금고 입찰 경쟁에서 신한은행은 사업협력비 등으로

300억원가량을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1600억원가량에 불과한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2014년 서울시금고 유치전에서 국민은행이 3200억원을 제시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제시해야 할지 윤곽이 나온 것"이라며 "우리은행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구금고도 내주면...공적자금 회수는?

이번 결과에 따라 우리은행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우선 지자체 금고지기의 가장 큰 장점인 '연계 영업' 부분에서 판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2013년까지는 서울시금고에 선정된 은행이 나머지 25개 구금고도 수의계약을 통해 가져갔다. 2014년부터는 경쟁 입찰로 바뀌었으나, 서울시금고를 운영하는 우리은행에서 대부분의 구금고를 맡아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구금고를 신한은행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 1급고를 포함해 26개 지점, 26명 지점장, 300명의 직원이 위태로워진 셈이다.

시청, 구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보했던 영업기반이 불안해지고 서울시립대 등 서울시 산하기관 영업에서도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은행에 한바탕 후폭풍이 휘몰아치면 실적에도 타격이 생기고, 나아가 정부(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올해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 지분 18.52% 중 7~8%를 팔고 나머지는 지주사 전환 후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선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한 주가 부양 등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번 서울시 1급고 탈락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우려다.

금융권 한 고위관계자는 "서울시는 우리은행을 거쳐 간 은행장마다 주력을 다 해왔던 기관인데, 이를 뺏겼다는 건 큰일"이라며 "일각에서는 서울시금고가 합병 전 은행이었던 상업은행에서 맡아 온 기관이라서 한일은행 출신인 손태승이 큰 애정 없이 준비했다는 얘기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안전운전, 車보험료 할인 되나요?

금감원 Q&A

Q 최근 내비게이션 앱에서 안전운전 점수를 확인해보니 97점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혹시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A 안전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수 실버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정거와 급가속을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평소 안전운전을 하신다면 '안전운전 특약' 가입을 추천합니다. 현재 DB손보, KB손보에서 판매 중이며 이 특약을 이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10%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내비게이션(T맵)을 기반으로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한 안전운전점수가 61점(100점 만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만 65세 이상 운전자(실버운전자)일 경우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실버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해 줍니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으려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하는 교육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운전전에 필요한 인지기능검사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이 발부하는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면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KB손보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5%에서 최대 8%까지 절약됩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KB국민은행 군산지역 中企 생산적 금융 지원

KB국민은행은 지난 4일 군산 지역 한국GM 협력업체들을 직접 방문해 금융에 대해 상담과 함께 맞춤형 자문서비스를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협력업체들이 안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남일 중소기업고객그룹 대표와 김춘태 기업여신심사부장은 KB국민은행을 거래중인 협력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지역현안 등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에 대해 기존대출금의 만기연



김남일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지난 4일 군산지역 한국GM 협력업체 대표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장과 분할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어버이날 선물, 건강식품 해외여행 카드할인 '핑핑'

카드사별 혜택·이벤트 다양 건강식품·식사·항공권 등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카드사들이 건강식품부터 여행상품까지 다양한 혜택 및 이벤트를 잇달아 제공하고 있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오는 13일까지 정관장 몰에서 삼성카드로 3만 원 이상 결제시 할인받을 수 있는 1만 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오는 15일까지 삼성카드 쇼핑에서는 안마기와 건강식품 등 다양한 품목을 회원에게 특가로 판매한다.

롯데카드는 정관장 로드샵이나 온라인 정관장 몰에서 롯데카드로 15만, 30만, 45만 원 이상 결제시, 결제일에 각각 1만 2만 3만 원을 할인해준다.

또한, 비씨카드로 이마트에서 안마의자 구매 시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가족과 오붓한 식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KB국민카드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이달 31까지 '체크카드 패밀리 오픈락 이벤트'로 다양한 할인을 제공한다. 오후 1시에서 오후 9시 사이 음식점, 영화관, 놀이공원 업종에서 건당 2만 원 이상 결제 시 추첨을 통해 매일 200

<가정의달 주요 카드사 이벤트>

신용카드사	행사마포일	이벤트
삼성카드	5월 13일	정관장 몰, 삼성카드로 3만원 이상 결제시 1만원 할인쿠폰 제공
	5월 16일	삼성카드 쇼핑, 안마기와 건강식품 특가 제공
롯데카드	5월 21일	정관장 로드샵이나 온라인 몰에서 15만 30만 45만원 결제시 1만 2만 3만 결제일 할인
	5월 31일	롯데카드 여행 홈페이지에서 롯데카드로 결제시, 아시아나 항공 일본 19개 도시 항공권을 최대 7%, 대한항공 유럽 6개 도시 항공권을 최대 8% 할인
비씨카드	5월 16일	이마트, 안마의자 상품 최대 10% 현장할인
	5월 31일	가정의달 예약상품 구매시 20% 할인(최대 5만원)
국민카드	5월 31일	오후 1~9시 음식점, 영화관, 놀이공원 업종에서 건당 2만원 이상 결제 시 추첨을 통해 매일 200명에게 모바일 교환권 발송
	5월 31일	SR 신규회원 가입시 10% 할인쿠폰, 우리카드로 3만원 이상 결제시 3000원 추가할인
하나카드	5월 31일	일본, 동남아, 괌 사이판 노선 항공권,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예매시 10% 할인쿠폰을 제공 (최대 3만원)

명에게 아오백 3만 원 모바일 할인권, 전세계 이마트 2만 원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 등을 발송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해외여행' 이벤트도 진행한다.

국내 기차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우리카드 이벤트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우리카드를 이용하면, SRT를 이용 시 저렴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에 한해 SR 신규회원 가입하면 10% 운임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한달간 우리카드

로 3만원 이상 결제시 3000원 추가할인을 해준다.

롯데카드는 오는 31일까지 롯데카드 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아시아나항공 일본 19개 도시 항공권을 최대 7%, 대한항공 유럽 6개 도시 항공권을 최대 8%까지 할인해준다.

하나카드는 이달 말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일본, 동남아, 괌 사이판 노선 항공권을 예매할 경우 금액별로 최대 3만 원까지 할인되는 1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시중은행, 주담대 대출금리 5% 넘어서

시장금리가 오르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다시 5%를 넘어서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8일 적용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 드금리(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가 3.67~5.01%를 기록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의 상단이 5%를 넘은 것은 3월 16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처음이다.

전주와 비교하면 4bp(1bp=0.01%포인트), 지난달 16일 주택담보대출 금리 범위

인 3.52~4.86%와 비교하면 3주 만에 15bp가 오른 것이다.

다른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5%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신한은행이 8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79~4.90%이며, KB국민은행의 경우 3.67~4.87% 수준이다.

우리은행의 8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75~4.75%, KEB하나은행의 경우는 3.527~4.727%였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3일 가산금리를

1.08%에서 0.93%로 15bp 인하했고 하나은행도 지난달 2일 가산금리를 16bp 내렸지만, 이런 인하분을 대부분 상쇄한 상황이다.

시중은행은 최근 몇 달째 가산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심지어는 인하하기도 했지만, 시장금리의 빠른 상승세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는 양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고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꾸준히 올랐다. /김문호 기자 kmh@